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성장한 첨단 건설 소재의 리더,
 실크로드시엔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Global **SILKROAD C&T**

세계 최고의 건축물에 실크로드시엔티의 **ROADCON®**이 사용됩니다.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첨단기술로
 대한민국을 넘어 **Global** 혼화제 대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사업분야

혼화제, 급결제, 바닥재, 실리카흙, 플라이애쉬, 분쇄조제 등

(주)실크로드시엔티 (주)실크로드티앤디 (주)실크로드하노이
<http://www.silkroadcnt.co.kr> <http://www.silkroadtnd.co.kr> <http://www.silkroadhanoi.vn>



SILKROAD

Special Theme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도시 리제너레이션

Focus

제3회 베트남 문화탐방

스타와 함께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 2관왕 박승희 선수

건축기행

크로아티아의 두 도시,
 자그레브 & 두브로브니크

창밖에

봄빛이
가득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녔으나
봄을 만나지 못했네
盡日尋春 不見春
짚신이 닳도록 먼 산 구름 덮인 곳까지 헤맸네
芒鞋遍踏 隴頭雲
집에 돌아와 매화 향기에 웃음 지었네
歸來笑然 梅花臭
봄은 이미 그 가지에 매달려 있었네
春在枝頭 已十分

중국에 전해 내려오는 시입니다.
짚구를 읊조리다 보면 봄이 어느덧
우리 곁에 와 있음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지금, 눈을 들어
소리 없이 말 걸어오는 봄을 느껴보세요.
움츠러들었던 열정을 꽃망울로 터뜨리는 봄!
그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이
여러분께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Contents



표지 이야기_ The Shard

2013년 완공되어 런던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The Shard〉.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다. 맨 꼭대기 전망대에 서면 런던 아이와 밀레니엄 브릿지 등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달라진 템즈강 주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2014년 봄호 통권 23호 〈실크로드〉 비매품
발행인 겸 편집인 박민환 발행일자 2014년 4월 30일
발행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빌딩 9층 (우 137-863)
(주)실크로드시앤티 02-2057-0114
기획 · 디자인 및 제작대행 비컴 02-543-6133 사진 제이스핸즈 스튜디오

02 생각의 창

Special Theme

04 Intro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도시 리제너레이션

06 Review
건설 시장에 부는 재생의 바람, 공동주택 리모델링 & 도시재생

08 Interview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

10 Report
재생의 건축, 도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다

12 Focus
실크로드시앤티와 함께하는 제3회 베트남문화탐방

14 Issue
SUPER Structure 2020 연구단 과제 공동연구기관 선정

16 Partner
현대레미콘(주)

18 People
영업3팀 이용호 부장

20 Now in Silkroad
• 문화와 예술을 통해 힐링하는 실크로드
• 금연성공기

22 스타와 함께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 2관왕 박승희 선수

24 Book Review
길을 나서고 싶은 계절, 책으로 떠나는 여행

26 한국건축 이야기
전통건축의 공간 _ 사람과 자연을 하나로 이어주는 집

28 건축기행
가톨릭 문화와 바다를 품은 크로아티아의 두 도시,
자그레브 & 두브로브니크

32 Money
아는 것이 힘!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34 Leisure
봄바람을 가르며 달린다, 자전거 하이킹

36 Health
우리 집 식탁 위에서 맛보는 세계의 장수음식

38 SILKROAD News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도시 리제너레이션

산업화와 건설 붐을 타고 지어졌던 건물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노후화되었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간 새 집을 짓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만 힘을 쏟았던 정부와 건설업계가 언제부터인지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하고, 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가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건설업계와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신도시 조성이나 재건축의 대안적인 솔루션으로 등장한 '건축과 도시의 재생'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설 시장에 부는 재생의 바람,

공동주택 리모델링 & 도시재생

건설 분야에도 재생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동안 물량 위주의 공급을 지향해 왔던 주택과 도시정책이 최근 '재생'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비롯해 도시재생에 이르기까지 건설 시장에 영향을 주는 재생의 트렌드와 관련 정책들을 알아본다.

글 이지훈

인생에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처럼 건축과 도시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성장과 쇠퇴의 수순을 밟는다. 도시의 확장과 신도시 조성으로 점차 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선택은 '리모델링'과 '재생'이다.

한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낙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재개발·재건축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지역 원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워졌다. 더욱이 건설 분야에도 전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신 '리모델링'을 유도하여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대신 선택한 카드 '리모델링'

지난 연말 확정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은 "그 동안의 대량 공급과 신규주택 건설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삶의 질을 고려하여 신규 주택 및 기존 주택의 품질 향상 위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건설에 재고 관리의 개념을 접목하여 기존 주택과 도시의 재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공동주택 재생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관련된 건축법 개정이다. 그 동안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에 덧대어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과 단지 내 여유 부지를 활용한 별동 신축만 허용되고 수직증축은 불허해 왔는데 이번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구연한 증대를 위해 그 동안 안전상의 문제로 제한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지상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층까지, 지상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범위도 현행 10%에서 향후 15%까지 확대된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사업에 대하여 초기 건축 당시의 구조도 확보, 전문가 그룹을 통한 구조 안전성 검토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함께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리모델링 정책이 바로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 시행 중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사업이다. 녹색 건축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과 리모델링 활성화 분위기가 맞물리는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절약장치, 신재생 에너지 활용, 단열 및 창호 개선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절감되는 냉·난방비로 장기간에 걸쳐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비주거빌딩 30억 원, 공동주택 세대 당 2천만 원, 일반 주택은 5천만 원 선.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이자 지원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성능 개선 정도에 따라 금리 2~4%까지 5년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하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광범위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기존 도시의 쇠퇴와 물량공급 위주의 도시 확장에 의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에 새로운 방법으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 사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작년 1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12월 26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도 발표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살펴보면, 향후 도시정책 방향이 기성 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도시재생에 필요한 부지를 기성 시가지 내에서 우선 공급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과 폐공장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다. 노후된 산업단지나 기능이 다한 항만부지 등에도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수립한 도시재생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한편,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도시재생 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3일에는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선도지역 공모사업도 시작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크게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누고 향후 4년간 경제기반형 사업 선도지역 2곳에 최대 250억 원을, 근린재생형 사업 선도지역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SILKROAD**

건설 및 도시계획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

최근 정부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도시재생 전략을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도시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또 도시재생 정책이 건설산업에 끼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국가 도시재생 R&D 창원 테스트베드 책임자인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를 만나 도시재생과 건설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글 권태숙 사진 김현수



도시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우리나라 도시들이 대부분 60년대 이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약 50년이 넘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Revitalization이라고 할까요? 다시 재활성화시켜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 변화나 수요에 맞춰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나가야만 합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시행하면서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도시재생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 역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원래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어느 시점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난 5~6년 간은 말 그대로

로 ‘재생’에 관련된 연구와 사업추진에 집중적으로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신개발이라는 것이 대부분 자연환경 훼손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존 시설들을 활용하여 환경 파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도시재생 분야에 뛰어들게 된 계기였다. 이에 따라 10여 년 전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시의 도시계획에 참여해 왔다는 황희연 교수. 그 동안 청주 연초제조창 재생 사

업, 중앙동 소나무길 문화예술의 거리, 사직2동 양달마을 마을기업 프로젝트 등 청주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국가 도시재생 R&D 사업 창원 테스트베드 제1핵심과제 총 책임자 역할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수원 마을 르네상스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청주시 및 공주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왜 재생인가?

“그 동안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재개발·재건축이나 신도시 조성 등 신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하지만 현재 사회적 수요의 측면을 살펴보면 예전처럼 대단위 주택이나 산업시설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문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의 저하, 토지 수용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개발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황희연 교수는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이 신개발 중심에서 기존 시가지 정비로 방향을 틀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대안이 도시재생이며, 이것이 우리 시대에 맞는 도시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 건물 및 시설의 ‘재활용’과 ‘주민 참여’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도시재생은 넓은 의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록본기힐스나 미드타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의 성격이 강한 대표 사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정책은 가급적 현 시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황희연 교수의 설명이다. 새로운 시설이 일부 도입되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살리면서 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한국형 도시재생의 한 축이다. 또 다른 축은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도시에서 붕괴된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업들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물리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황희연 교수는 그 과정에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일정 부분 마중물 같은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등 여건을 조성해주는 사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건설,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

건설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신도시나 대규모 신축 사업 등이 이루어져야 건설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황희연 교수는 사회적 흐름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은 건설 분야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



며 재생은 자원의 재활용, 즉 환경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제 건설 부문도 얼마만큼 많이 공급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더 양질의 공간을 제공하는가가 중요해졌다.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미래 세대가 추구하는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공간을 창조하는 데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황희연 교수는 건설업계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고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도시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우리 도시들이 대부분 60년대 이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약 50년이 넘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Revitalization이라고 할까요? 다시 재활성화 시켜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 변화나 수요에 맞춰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크든 작든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수반되기 마련이라며 앞으로 역세권이나 항만, 노후 산업단지의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재생 부분에서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하는 황희연 교수. 그는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건설업계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SILKROAD**

재생의 건축 도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다

지난해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도시재생은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쇠퇴지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경제·문화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규모 도시개발과 신시가지 개발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의 도시 관리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추진배경,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송지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교통 인프라 투자로 도시재생의 모델이 된 런던 도클랜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유발된 대규모 산업 유희지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기법을 적용한 도클랜드 도시재생 사업은 80~90년대 영국 도시재생 사업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총 39억 파운드의 공공 비용이 투자되었으며 도클랜드개발공사에 의해 1979~1998년까지 약 17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었다. 런던 도클랜드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①아일 오브 도그(Isle of Dogs) ②와핑과 라임하우스(Wapping-Limehouse) ③로얄 독과 벡톤(Royal Docks-Beckton) ④서리 독과 버몬지 리버사이드(Surrey Docks-Bermondsey Riverside)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아일 오브 도그는 엔터프라이즈 존 개념을 적용한 런던 제2의 금융지구 카나리와프(canary wharf)를 조성하였고 와핑과 라임하우스 지역은 기존 커뮤니티 중심의 재생 사업과 기존 창고의 재활용, 호텔, 세계무역센터 등을 추진하였다. 로얄 독과 벡톤 지역은 교통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여 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인 어반 빌리지, 공항(London City Airport)과 철도를 연계한 로얄 비즈니스 파크 등을 조성하였다. 서리 독과 버몬지 리버사이드는 상업시설 및 복합 주거시설,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였다.

도클랜드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투자 금액의 50%를 교통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 결과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질적 향상,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마스터플랜에 입각한 실행계획 수립과 도클랜드개발공사의 리더십이 성공적인 사업 결과를 견인하였고 각 이해 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물리적 개선뿐 아니라 사회 프로그램 등의 사회적 재생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

템즈강 남쪽의 낙후 지역을 새로운 문화 중심으로 바꾼 밀레니엄 프로젝트

영국은 낙후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 아래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3천여 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특히 런던에서는 낙후된 템즈강 남쪽 지역의 활성화에 사업이 집중되었다. 템즈강 북쪽은 정치·문화·경제·관광 등의 핵심시설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템즈강 남쪽의 서덕(southwark), 램버스(lambeth) 지역은 방치된 산업지역으로 런던에서 가장 낙후된 곳 중 하나였다. 런던 시

는 이민자,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 지역에 핵심 도시재생 방안으로 밀레니엄 돔(Millennium Dome), 런던 아이(London Eye), 밀레니엄 브리지(Millennium Bridge) 그리고 템즈 강변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Tate Gallery of Modern Art) 등을 조성하여 런던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변모시켰다.

템즈강 남쪽 사우스뱅크에 위치한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는 1981년 폐업한 뒤 20년간 방치되면서 주변 지역까지 슬럼화 시켰다. 런던시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치됐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보다는 기존의 모습을 유지·재사용하여 ‘테이트 모던 갤러리’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주변 지역까지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밀레니엄 브리지’는 기존의 행정·금융·문화 중심지인 템즈강 북쪽과 사우스뱅크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축을 형성함에 따라 테이트 모던 갤러리와 함께 런던의 새로운 문화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주변 지역을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템즈강 북쪽에 집중된 거주자와 관광객을 남쪽으로 유인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 도시 브랜드 형성, 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미래, 청주 도시재생 사례

청주 연초제조창은 광복 직후 1946년 건설되어 지역의 고용 증대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담배 제조공장의 현대화에 따라 2000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쇄된 뒤 방치되었다. 그런데 최근 연초제조창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아트팩토리 프로젝트(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향후 원료창고는 첨단문화산업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며 연초제조창 일부 공간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쇠퇴한 공장 건물을 창조적으로 재활용하고자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청주시 도시재생 사례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도시들은 도시 외곽 중심의 개발, 경제기반 상실 등으로 도시 쇠퇴현상이 심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은 화려한 물리적 개선만이 아닌 공공성, 커뮤니티 증진, 균형 발전, 복지 등과 같은 사회적 재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사회·환경·커뮤니티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과정을 통해 창출된 ‘장소의 재생’은 도시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고 나아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 브랜드 및 정체성 구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SILKROAD**



01 로얄독(Royal Docks)
02 런던 제2금융지구 카나리와프
03 밀레니엄 브리지
04 폐업 직전의 청주 연초제조창 전경(1990년대)
(자료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 발췌)





실�크로드시앤티와 함께하는 제3회 베트남문화탐방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여정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기업으로서 매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온 실�크로드시앤티가
올해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베트남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인류가 이룩한
문화유산의 위대함을 느끼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던 베트남문화탐방, 그 즐거운 여정을 함께해 보자.

글 권태숙

지난 2월 17~21일, 24~28일 2차례에 걸쳐 '실�크로드시앤티와 함
계하는 베트남문화탐방'이 진행되었다. 그 동안 고객들이 실�크로드
시앤티에 보여준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는 실�크로드시앤티 임직원과 고객사 등 총 100명이 참가했다.

실�크로드시앤티와 함께하는 베트남문화탐방은 2009년 처음 시작
한 이래 올해로 3회째다. 1회와 2회 행사에서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
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은 바 있다.

3박5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베트남문화탐방은 베트남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이자 실�크로드시앤티 해외법인이 위치한 '하노
이'와 유네스코 지정 세계 3대 자연유산으로 꼽히는 '하롱베이'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보는 여정으로 이루어졌다.

하노이에서는 실�크로드하노이 공장 견학을 시작으로 수공예품부
터 골동품까지 각양각색의 상품이 판매되는 36거리와 호암끼엠 호
수 방문 등 베트남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기관이 모여 있는 바딘 광장과
호치민 생가를 돌아보며 베트남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도 있었다. 또한 전통 공연인 수상인형극을 관
람하며 베트남 문화의 일면을 엿보기도 했다.

신이 내린 절경이라 일컬어지는 하롱베이에서는 선상에서 베트남 전통 활어회를 맛보고 띠툼섬에 올라 하롱베이
일대를 조망하는 등 천혜의 절경 속에서 여유를 만끽했다. 이처럼 즐거움으로 꽉 찬 일정 속에서 고객사와 실�크로드
시앤티 임직원들은 서로를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다.



베트남 문화탐방을 다녀와서



회사 홍보 담당자의 자격으로 베트남문화탐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후 거의 2~3개월간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을 보냈던 것 같다. 주변 친구들로부터 좋
은 회사라며 부럽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인지 내심 뿌듯함도 느끼며 베트남으로 떠
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출발 당일, 인천국제공항에 3박5일의 여정을 함께할 사람들이 모였다. 여행의 기대와 설렘을 안고 5시간 가량의 비행 끝에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첫날은 하노이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기본 좋은 휴
식을 취하고 이튿날 아침 실�크로드 하노이법인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이 이어졌다. 처음 방문하는 실�크로드하노이. 현수막에 쓰
인 "환영합니다."라는 한글이 참 반갑게 느껴졌다.

다음으로 둘러보게 된 하노이 시내에서는 평생 볼 오토바이를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오토바이들의 행렬을 만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것 중 하나가 베트남의 주택이다.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인이 베트남인을 통제하기 위해 집
구조를 규정했는데 그 규격이 가로 4mX세로 8mX높이 3층으로 폭이 좁고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였다고 한다. 지금은 자유롭게 지
을 수 있는데도 베트남 사람들은 이미 그 규격과 형태에 익숙해진 듯 보였다.

다음 날은 그토록 기대했던 하롱베이를 찾았다. 수면 위에 떠 있는 섬들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작은 배에 올랐는데 내게는 바다에서
숫아났다는 수많은 섬들보다 오히려 평생 물 위에서 살아가는 수상가옥 주민들이 더 신기하게 여겨졌다. 그들에게는 물이 우리의 땅과
다를 것 없는 삶의 터전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오징어를 맨손으로 잡는 광경, 배 위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누워 있는 강아지들, 박수
를 치면 메아리가 되돌아오는 고요한 바다... 비키니를 입고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부터 패딩 점퍼를 입은 사람들까지 각양각색의 관광
객들이 모이는 곳 하롱베이는 그렇게 이국적인 삶의 풍경으로 가득했다.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도 하롱베이에서 만난 베트남 사람들의 소박하면서도 정감 있는
모습이 여전히 가슴에 남는다. 베트남 사람들은 참 친절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었다. 어딜 가나

한국어 간판이 눈에 띄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정감 있게 느꼈던 것 같
다. 이렇게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준 회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Xin Cảm ơn!' (썬감언, 베트남어로 '감
사합니다!') SILKROAD





SUPER Structure 2020 연구단 과제 공동연구기관 선정

글 성상욱(건설경제신문)



건설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스탠다드를 주도하여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건설소재 전문기업 실크로드시엔티가 슈퍼 콘크리트 연구 개발에 동참하고 있다.

2013년 12월, 실크로드시엔티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SUPER Structure 2020 프로젝트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SUPER Structure 2020 프로젝트는 첨단건설재료 기술과 핵심 설계·제작·시공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저비용, 고품질의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해외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로 추진하는 과제이다.

SUPER Structure 2020 프로젝트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실크로드시엔티는 한국건설교통기술연구원과 함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맞춤형 콘크리트 구조물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SUPER Structure 2020을 통해 개발된 슈퍼 콘크리트는 장대교량, 수중교량, 침매터널 등 사회기반시설 및 고부가가치 구조물에 최적의 건설재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실크로드시엔티는 이번 SUPER Structure 2020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ILKROAD C&T was selected a joint research institute of ‘SUPER Structure 2020’ project sponsored by KAIA(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an affiliation of MOLI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December 2013. The purpose of ‘Super Structure 2020’ Project is to increase global construction market share up to 20% by securing high quality concrete construction technologies through the convergence of advanced construction materials, core designs, fabrications and construction technologies.

SILKROAD C&T, a joint research company of ‘Super Structure 2020’ project, will carry out cooperative development for customized concrete structures with KICT(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for 5years from year 2014 to 2018. Super concrete developed by ‘SUPER Structure 2020’ project is expected to be utilized optimum construction materials for infrastructure and high value-added structures such as long-span bridges, underwater bridges, immersed tube tunnels in seas and so on.

SILKROAD C&T expects to strengthen its technology limits through this ‘SUPER Structure 2020’ project. [SILKROAD](#)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똘똘 뭉친 ‘참 좋은 회사’ 현대레미콘(주)

옛말에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지만, ‘나중 솜은 돌이 더 우뚝 오른다.’는 말도 있다.
이제 창업 3년차를 바라보는 신생 회사가 기라성 같이 쟁쟁한 형님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었던 비결은 최고라는 자부심, 그리고 직원을
내 가족처럼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경영이 큰 빛을 발한 덕분이었다.
전남 목포의 떠오르는 기대주 현대레미콘(주)을 소개한다.

글 이용규 / 사진 김현진



현대레미콘(주) 임진 실장

작지만 내실 있는 탄탄한 회사

지난 2012년, 큰 기업에 몸담고 있던 네 사람이 독립해 나와 작은 회사를 차린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박차고 나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신생 레미콘 회사를 세운다고 했으니 과연 잘 될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정구 사장을 비롯한 네 사람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도전할 수 있었고, 결국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은 회사 창립 첫 해 60억 원 매출이라는 성과로 보답 받게 되었다.

강정구 사장을 위시하여 영업팀장, 관리팀장, 품질실장 등 현대레미콘의 ‘간부’들은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일을 배워오면서 1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두루 거친 베테랑들이다. 이들이 기업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신생 레미콘 회사를 차린 것은 ‘그들의 전문 영역’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마련이죠. 저희가 처음 창업을 결심했을 때 1차 목표는 월급이나 퇴직에 구애받지 않고 정년을 보장받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네 사람이 의기투합 하게 된 거죠.”

제일 잘 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실수도 적을 거라는 생각에 레미콘 회사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임진 이사는 젊은 시절부터 레미콘 업계에 몸담아 온 사람들이었으니 당연한 선택 아니었겠느냐며 웃음을 지었다. 스스로 레미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이 직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엿보였다.

네 명의 창업 동기를 포함해 총 11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현대레미콘은 창립 첫 해 60억 원이라는 ‘처음치고는 괄썩은 실적’을 올렸다. 이들이 신생 레미콘 회사라는 핸디캡을 딛고 작지만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답은 ‘사람’에 있다고 말한다.

배려, 믿음, 결국은 사람이다

현재 전남 목포에는 14개의 크고 작은 레미콘 회사들이 운집해 있다. 지역 특성상 비교적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많은 레미콘 업체들이 몰리다 보니 과다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많은 업체들이 국내 최저 단가라는 자충수를 두게 되었다.

“레미콘 사업은 건설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 오룡지구와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주춤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포 지역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거래선이 세 군데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이곳으로 몰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임진 이사는 때로 원가 이하의 판매를 감수해야 할 때는 눈물을 머금기도 하지만 자신들을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주었던 고마운 고객들을 생각하며 다시금 힘을 낸다고 말한다.

목포는 지역 특성상 섬이 많다 보니 섬과 섬을 잇는 대교들도 많다. 당연히 고강도 콘크리트 제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화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압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현대레미콘이 실크로드시엔티의 혼화제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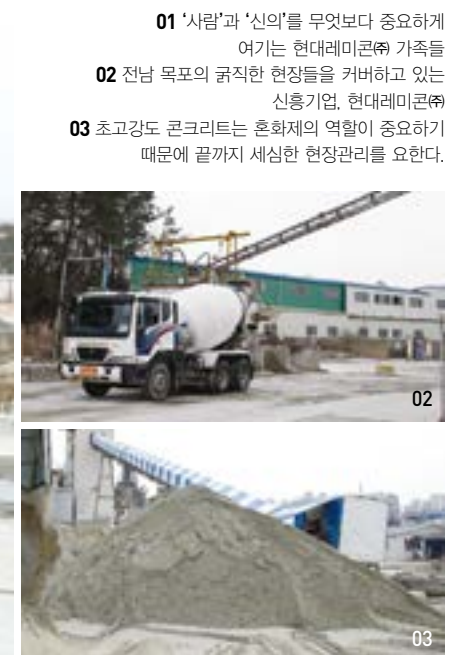
“실크로드시엔티와 연을 맺게 된 게 벌써 7~8년이 넘었네요. 혼화제는 특히 계절별로 감수율을 조절하고 유동성을 높이는 등 관리가 중요해요. 실크로드시엔티는 업계 리딩 기업이라서 믿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레미콘은 혼화제와 궁합이 잘 맞아야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하는 임진 이사. 그는 레미콘이 반제품이라 정확한 퍼센트로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을 끝까지 지키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런 상황에서 실크로드시엔티 직원들처럼 현장을 잘 이해하는 파트너와의 협업은 큰 시너지를 내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단순한 영업 관계를 떠나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인간적인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어 ‘정’을 중요시 여기는 회사 정서와도 잘 부합하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미소를 짓는다.

레미콘 사업에 있어서 혼화제는 원가 절감과 품질,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두 회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파트너다. 지금까지 좋은 협업관계를 유지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SILKROAD**



01



02



03

- 01 '사람'과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레미콘(주) 가족들
- 02 전남 목포의 굵직한 현장들을 커버하고 있는 신흥기업, 현대레미콘(주)
- 03 초고강도 콘크리트는 혼화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세심한 현장관리를 요한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적응했냐는 질문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기대에 답하려면
실적으로 보여드려야겠죠.

영업3팀 이용호 부장



Global 실크로드, World Best 기업을 향해 뚝다

그가 돌아왔다! 실크로드 하노이법인이 출범한 지
1년 후 현지 영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베트남으로
떠났던 이용호 부장이 작년 10월 말 본사 영업3팀으로
복귀한 것이다. 한결 여유 있고 편안해진 표정의
이용호 부장을 만나 약 5년 간의 베트남 생활과 영업3팀
일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 보았다.

글 권태숙 / 사진 김현진

온화한 인상에 부드러운 목소리와 달리 이용호 부장의 말에서 단호한 의
지가 느껴진다. 베트남 하노이법인에서 복귀한 지 이제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실적이 좋으면 잘 적응한 것으로 봐달라며 웃는다. 그
말은 자신감과 또 다른 뉘앙스였다. 바로 확고한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로 들렸다.

‘최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영업맨

5년 전 베트남 하노이법인으로 떠나기 전부터 그는 회사는 물론 거래처
에서도 성실하고 열성적이기로 소문난 영업맨이었다. 실크로드시앤티 제
품을 불신하는 거래처 담당자가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꼬박 3년을 꾸준
히 찾아간 적도 있었고, 경쟁사 제품을 선호하는 또 다른 거래처 담당자
를 만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집 앞으로 찾아간 적도 있었다. 덕분에 그들
모두 지금은 실크로드시앤티의 고객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도 영업 경력만 14년인데, 내가 지금 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 납품을 한 걸 보면 영업에는 역시 왕도
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하는 이유는 실크로드시앤티에 입사
하기 전, 힘들고 막막한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인지 모른다. 대학
을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IMF 여파로 회사
가 부도 나는 바람에 거의 1년간을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
녔다. 회생하리라 믿었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지키기 위해 탄탄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를 선택해
문을 두드린 것이 바로 실크로드시앤티였다고 한다.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순간,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기분을 느
끼며 ‘이제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용호 부장. 그
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기에 입사 초기부터 어떻게든 좀더 잘해보
려고 무던히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힘들었던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베트남에서의 5년

그런 노력 덕분에 이용호 부장은 회사 안팎에서 능력을 인정받
게 되었고, 2009년 실크로드 하노이법인 영업소장으로 발령을 받
아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다. 하노이법인이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
보로서 중요성을 띄고 있었던 만큼 열정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가족들과 함께 동반 부임한 베트남에서도
이용호 부장은 최선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줬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현지 영업직원들을 데리고 영업을 하기란 분명 쉽지 않
은 일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문화적 차이가 컸다. 베트남 사람
들은 매우 느긋한 기질을 갖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와 달리 조직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다. 그런 분위기에서 직원들을 관리
하고 통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베트남 사람들은 상사의 지시라고 해서 잘 따라야 한다는 생각
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교육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했죠.”

한국-베트남 문화사찰단 행사를 통해 베트남 사장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문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현지 직원들과 가족동반 모
임을 갖는 등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딛고 베트남에서 기반을 닦으며 값진 경험
을 쌓아온 이용호 부장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르면 기본
을 지키자.”는 생각으로 극복해왔다고 되돌아본다.

돌아온 영업3팀 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다

“한국에 돌아와서 가
장 좋은 점이 있다면
조언을 구할 선배 팀장
님, 그리고 서로 도와
주는 팀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급의 젊다면 젊은 나이에 한 조직의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
었던 이용호 부장은 스스로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
오를 많이 겪었다고 말한다.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회사, 나침
반이자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었던 팀장님들, 함께해온 동료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다.

베트남에서의 5년 동안 그는 실크로드시앤티 영업부 특유의 조
직문화가 매우 그리웠다고 한다. 상하관계가 확실하고 기강이 잘
잡혀 있지만 서로 힘든 만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팀 분위기, 팀원
들이 능력의 200~300%를 발휘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해주
는 팀장들의 뛰어난 리더십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율이 제로에 가
깝다는 영업부! 다시 돌아온 영업3팀에서 이용호 부장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오늘도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첫
번째 목표는 일단 기존에 담당하던 거래처들 중 거래가 끊어진 곳
을 다 회복하고 영업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

“비행기를 타고 가다보면 항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98%나
됩니다. 하지만 결국 제 시간에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곤 하죠.
그 이유는 확고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목표에 따라
일을 하면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목표
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용호 부장의 말을 들으며 세계 초일류 건설소재 리더 기업이
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에 실크로드시앤티의 미래 또한 밝을 것
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SILKROAD**



문화와 예술을 통해 힐링하는 실크로드

좋은 음악을 듣고 멋진 무대를 볼 때면 신기하게도 가슴 속에 무언가 일렁이는 것을 느낀다. 때로는 기분이 들뜨기도 하고 때로는 극한의 슬픔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예술의 힘이다. 실크로드시엔티가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임직원들에게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 배미일(경영지원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공연 뮤지컬 <베르테르>

실크로드시엔티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직원들을 위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문화예술을 통해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지난 12월 10일에는 송년모임 겸 본사는 물론 태안, 평택, 제주 사업장 등 각지에 근무하는 실크로드시엔티 여직원들이 함께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예술의 전당에 모였다.

이날 직원들이 관람한 공연은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베르테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처음 무대에 올려진 이후 13번이나 재공연을 거듭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2013년의 뮤지컬 <베르테르>는 의상과 무대 연출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서정성 짙은 배우들의 연기가 특히 돋보였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명품 보이스'라는 찬사를 받는 임태경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베르테르 역을 맡아 '엄베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 배우 엄기준이 더블 캐스팅 되었으며 로테 역은 전미도와 신예 이지혜가 맡아 열연했다. 공연이 끝난 뒤 한 직원은 모든 배우들이 소설 속에서 금방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특히 배우 엄기준의 감성적인 음색과 아련한 연기에 팬이 되고 말았다고 관람 소감을 전했다.



유니버설발레단의 매력, 한국 발레의 정수를 한자리에 유니버설발레단 30주년 <스페셜 갈라>

2월 21일에는 유니버설발레단 30주년 <스페셜 갈라> 공연을 관람했다. 1부는 클래식, 2부는 모던으로 구성해 유니버설발레단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었는데, 발레단의 실력과 자신감이 고스란히 전해진 무대였다. 특히 3부에서 관객들을 무대로 초대해 함께 춤을 추는 즉흥공연, '마이너스 7'은 갈라의 대미를 장식하며 발레를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공연을 함께한 여직원들은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연 시간이 짧게 느껴졌을 만큼 수준 높고 훌륭한 무대였다고 평하면서 한국 발레의 높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SILKROAD**

금연성공기 아들에게 기억될 아빠 냄새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결심하고 도전하고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건강한 직원이 건강한 기업을 만든다는 철학 아래 실크로드시엔티는 임직원들에게 건강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금연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회사의 방침 덕분에 금연에 성공하고 그 포상으로 경비를 지원받아 가족여행을 다녀온 TD팀 이주용 과장의 금연 성공담을 들어본다.

글 이주용(TD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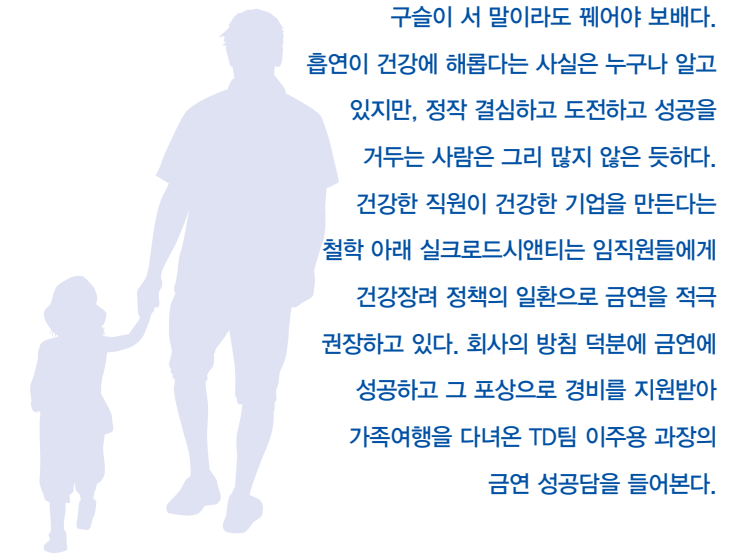
얼마 전 회사에서 금연에 성공한 포상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 받아 가족과 함께 3박5일의 여행을 다녀왔다. 아름다운 바다와 해변, 야자수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것도 물론 좋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신나서 좋아했던 아들의 얼굴이다. 그 동안 육아보다는 회사 일을 더 우선시하는 아빠였는데, 처음으로 긴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더욱 특별한 휴가였던 것 같다. 이국적인 풍경에 들뜬 아이들이 여행 내내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며 새삼스럽게 아내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금연을 결심하게 된 것은 2012년 5월부터였다. 회사의 금연장려 정책과 직원들의 성공담이 계기가 되어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에 들어갔는데, 보다 근본적인 동기는 아내와 3살, 5살의 어린 아이들 때문이었다. 아이들에게 담배 냄새를 맡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서는 담배를 잘 피우지 않았고 가족들로부터 담배를 끊으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금연을 하게 된 후부터는 가족들 앞에서 더욱 당당할 수 있고 아이들을 안아줄 때 옷에 밴 냄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말 좋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주변 사람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보면 조금 흔들리기도 했지만 당초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금단증상도 별로 없었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농담 삼아 금연에 성공한 덕분에 보험료가 저렴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금연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사실 내 몸의 변화보다도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이 나를 더 뿌듯하게 만든다. 적어도 훗날 아이들이 나를 추억할 때 아빠의 체취를 담배 냄새로 기억하는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일에 큰 도움을 주고, 행복한 여행의 추억까지 만들 수 있게 해준 회사에 감사를 전하며 나의 금연성공담을 마무리하고 싶다. **SILKROAD**





영화보다 진한 감동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 2관왕

박승희 선수

감격과 환희, 아쉬움과 눈물이 함께했던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쇼트트랙 1000m와

계주 금메달을 딴 소치 2관왕, 그리고 얼마 전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역사상

최초로 500m 금메달을 따낸 주인공. 그야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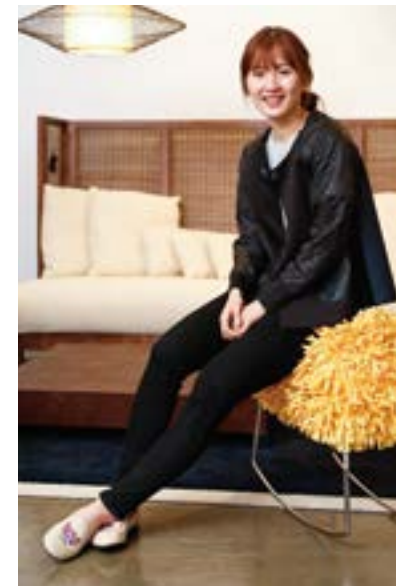
올해는 박승희 선수의 한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 권태숙 / 사진 김현진 / 장소협찬 indahdesign

소치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전. 박승희 선수가 초반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며 선두로 치고 나갔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영국 선수와 이탈리아 선수가 뒤엎키면서 박승희 선수도 같이 넘어지고 말았다. 금메달이 동메달로 바뀌는 순간은 선수와 국민들 모두에게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SU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 결승전. 이번에는 영국 선수가 초반부터 선두로 치고 나갔다. 하지만 한 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박승희 선수가 영국 선수를 따라잡고 1위로 피니쉬 라인을 통과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역사상 최초의 여자 500m 금메달을 따낸 것이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지만 500m 경기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 그런 까닭에 박승희 선수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500m 경기에 집중해보자 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한다.



어렸을 때 언니와 함께 스케이트를 배우기 시작한 박승희 선수는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가 되었다.

이후 매일 새벽 5시에 훈련을 시작해 저녁 때까지 ‘운동-식사-수면’으로 이어지는 단순하면서도 고된 일상을 반복해왔다. 박승희 선수가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은 훈련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 도전할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무리한 욕심을 내기보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대회와 쇼트트랙 월드컵 등 다른 대회들도 많으니 쇼트트랙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크로드 독자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박승희 선수. 1년 후 더 의욕넘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얼음 위를 질주할 그녀의 모습이 기대된다.

Park Seung-Hee led the first lap with explosive speed in women's 500m short-track final round at the Sochi Winter Olympics. However, following British and Italian players entangled together resulted in her tumbling down. This moment which a gold medal was changed to a bronze medal drove both Korean people and her into a deep frustration.

After one month later at the ISU World Championships held in Montreal, Canada, a British player led early at this time in women's 500m short-track final. However, Park Seung-Hee passed the competitor at the final lap and the finish line first. It was the first gold medal for Korea at the women's 500m in short-track history.

Korean female short-track players had not achieved great results in 500m race even though they are world best players. Therefore, Park Seung-Hee concentrated on practicing 500m race before the Olympics and World Championships, which resulted in a gold medal.

Park Seung-Hee, who started to learn skate with her older sister in an early age, became a member of the national team at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Since then she has daily repeated the simple and hard schedules such as exercise, meal, and sleep from 5a.m. to evening. Therefore, Park Seung-Hee decided not to participate in a selection game in this year for a national team because she thought “rest is as important as exercise.” Even though her challenge to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s not determined yet, Park Seung-Hee thinks positively because it is held in Korea. This is a reason why she decides to have some time to recharge herself.

“Not only Olympics held in every 4years but also many other Short-Track games including World Championships and World Cup are taken place. Thus please continue showing much interest in short-track.” Park Seung-Hee finally requests the readers of ‘SILKROAD’ magazine to show her more interests and cheers. We expect Park Seung-Hee will skate on ice rink with highly motivated and healthy looking in the next year. **SILKROAD**



이성을 자극하는 여행 에세이

번뜩이는 지성으로 여행에 깊이를 더하다

여행의 기술

알랭 드 보통 / 청미래



길을 나서고 싶은 계절,

책으로 떠나는 여행

여행은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무엇을 얻고 돌아올 지는 오롯이 떠나는 이의 몫이다.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배낭 하나 둘러메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여행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행복한 영감을 주는 두 권의 책을 소개한다.

글 김지수 북칼럼니스트

어느 늦은 오후에 날아든 광고지에서 윌리엄 호지스의 그림 ‘다시 찾은 타히티’를 연상시키는 열대의 해변 사진을 보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알랭 드 보통. 《여행의 기술》에서 알랭 드 보통은 바베이도스 섬으로 가는 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현재를 긴 영화에 비유한다면, 기억과 기대는 거기에서 핵심으로 꼽힐 만한 장면들을 선택한다. 내가 이 섬에 오기까지 9시간 30분이 걸렸는데, 기억은 불과 예닐곱 장의 정적인 이미지만 남겨 놓았다.”

이 한 마디의 말만으로도 알랭 드 보통의 사유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일상성의 발명가’라 불리는 알랭 드 보통은 사랑, 건축, 종교,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사유의 방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전 세계인들을 매혹시키고 있는 동시대 최고의 문장가 중 한 사람이다. 《여행의 기술》은 바로 그 알랭 드 보통이 바베이도스와 마드리드, 시나이 사막, 프로방스, 레이크

디스트릭트, 암스테르담 등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쓴 에세이집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베이도스의 바다와 시나이 사막의 숭고한 풍경, 히드로 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시각표 등 자연 경관이 주는 아름다움부터 여정 속의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다. 그는 여행이라는 모티프를 바탕으로 문학과 예술, 철학의 경계를 거침없이 넘나들며 예술적 가치와 지적 호기심을 마음껏 충족시키고 음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그의 박식함과 통찰력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독자들로 하여금 ‘어디를 여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여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책 《여행의 기술》. 알랭 드 보통은 이 책을 통해 여행의 본질과 방법, 그리고 여행을 통해 보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감성을 자극하는 여행 에세이

여행길에 만난 세상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다

끌림

이병률 / 문학동네



‘미국·캐나다’, ‘일본·동남아’... 여행지 정보가 뽁뽁하게 담긴 가이드북이 서점가에서 여행 분야 베스트셀러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던 2005년. 사람들에게 ‘관광’이 아니라 ‘여행’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 등장했다. 시인이자 라디오 음악방송 구성작가인 이병률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 50여 개 국 200여 도시를 여행하며 남겼던 감상을 책으로 펴낸 여행 에세이 《끌림》이다.

이국적인 풍경이나 유서 깊은 문화유산의 장엄한 광경 대신 흰 바탕에 ‘끌림_travel note’라는 짧은 제목만 정갈하게 쓰여 있던 표지, 단편적인 사진들, 일정한 형식 없이 써내려간 순간 순간의 기록들은 정형화된 여행서들 사이에서 오히려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멕시코의 이발사에게 이발을 하고,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사먹고,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를 배우고... 그의 여행은 같은 곳을 여행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펼쳐진다. 자유로움으로 가득한 일탈의 즐거움과 낯선 여행지에서의 소소한 일상들이 따뜻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그 속에서 독자들은 우리네와 똑같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갈증에 시달릴 때 물에 라임을 넣어주던 물장수 아저씨와 화분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던 여행자, 거스름돈이 없어서 팔 수 없다며 옥수수를 공짜로 주었던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이병률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당초 이병률 작가의 산문집으로 출판된 《끌림》은 수많은 독자들의 감성을 깨우고 속살을 간질이며 여행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이후 등장한 수많은 감성 여행 에세이의 효시가 되었다.

2010년 그 동안 쌓인 여행 이야기를 덧대어 개정판이 출간되었으며 여전히 독자층을 늘려가고 있는 《끌림》.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 하는 생활인들에게 이병률처럼 여행하고 느끼기를 통해 가슴 속 갈증을 풀어주기 충분한 책이다. **SILKROAD**

사람과 자연을 하나로 이어주는 집

집에 대한 이해는 자연과 사람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집은 자연 속에 놓이며, 사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주관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우주(宇宙)’라는 말에는 ‘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전(字典)적 의미로

‘우(宇)’와 ‘주(宙)’는 모두 ‘집’을 뜻한다. 대우주(大宇宙)와 중우주(中宇宙), 소우주(小宇宙)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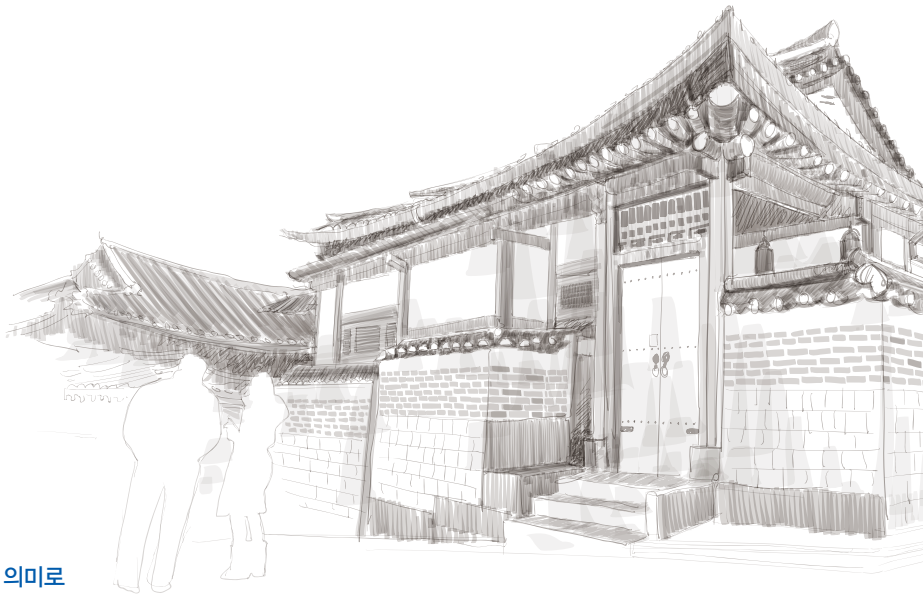
각각 대자연과 집,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연과 사람, 그리고 집은 하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중우주인 집은 대우주인 자연과 소우주인 소아(小我), 즉 나와의 사이에 위치한 존재로 사람과 자연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해야 하는 ‘사람’은 집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삶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다.

글 김도경(공학박사,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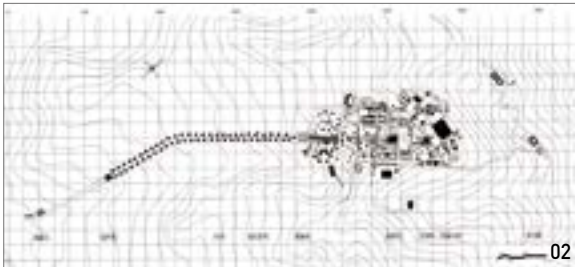


땅의 흐름을 읽고 집을 짓다

사람과 자연, 집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집의 좌향과 좌우에 대한 인식에서 잘 나타난다. 땅 위에 집을 앉히는 것을 ‘좌향(坐向)’을 잡는다.’고 한다. ‘좌(坐)’는 집이 앉아 있는 곳을 의미하고 ‘향(向)’은 집이 앉아서 바라보는 방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좌남향’이라고 하면 북쪽에 앉아 남쪽을 바라본다는 뜻이며, 보통 이를 줄여서 ‘남향’이라고 표현한다. 좌향을 잡을 때는 산의 흐름을 중요시 여긴다. 산속에 위치한 전통 사찰에 가면 일주문에서 천왕문, 금강문, 법당으로 가는 길이 산의 흐름에 맞추어 꺾이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건물을 땅의 흐름, 즉 자연에 맞추어 배치한 결과다.

건물의 좌우에 대한 인식도 집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집 안에 앉아서 내다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서양의 개념으로 볼 때 건물의 좌우는 건물 앞 바깥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와 반대의 개념이다. 풍수에서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서울의 경우 백악은 진산(鎭山)으로 북(北) 현무(玄武)이며, 그 앞쪽에 바라보이는 목멱산, 즉 지금의 남산은 남(南) 주작(朱雀)이 된다. 그리고 동쪽의 낙산은 좌청룡, 서쪽의 인왕산은 우백호가 된다. 북쪽에 위치하여 남향한 경복궁에 앉아 있는 임금의 입

01 서울의 옛 지도(경조오부도)
02 영주 부석사 배치도
(출처 : 무량수전 실측조사보고서, 2002)



장에서 볼 때 동쪽은 왼쪽, 서쪽은 오른쪽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점의 차이가 방향의 차이를 만든다. 우리가 지닌 좌우의 개념은 땅, 그리고 땅 속에 앉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형성된, 매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개념이다. 집이 자연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자연과 사람이 집을 통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선조들의 철학을 읽을 수 있다.

자연의 경치를 끌어들이다

‘차경(借景)’이라는 말이 있다. 원래는 중국의 원림(園林)을 조성하는 방법을 기술한 《원야(園冶)》라는 책에 사용된 말이다. 이 책에 “雖由人作, 宛自天開”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모름지기 사람이 만들었으되, 원래 그렇듯 하늘이 만든 것처럼 해라.”라는 뜻으로 원림을 조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제시된 차경은 말 뜻 그대로 ‘자연의 경치를 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건축이 지닌 개념과 같지만, 실제 건축과 주변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우리와 매우 큰 차이를 지닌다. 중국에서는 주변 환경을 철저히 인공적으로 조성한다. 그래서 집 주변에 마치 자연인 것처럼 연못과 산을 만든다. 《원야》에서 말하는 차경은 이렇게 자연의 모습을 모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계절이 있고 산이 많아 변화가 많은 우리의 자연환경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우리의 시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연에 맞추어 집을 앉히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눈높이와 주변에 펼쳐진 자연의 모습을 함께 고려하여 담장의 높이를 비롯한 모든 인공물의 위치

와 높낮이를 조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 속에 앉아있는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된다.

상대적인 공간 개념에서 탄생한 전통건축의 공간 분할

우리의 집에는 지붕 아래 위치해 있으면서도 벽이나 창호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청마루는 지붕 아래의 공간으로 뒤쪽과 옆은 벽과 창호로 막혀 있지만 앞쪽은 개방되어 있다. 툇마루도 마찬가지다. 이 공간은 내부일까, 외부일까? 우리의 건축 공간이 지닌 중요한 특성 중 하나다.

우리의 건축 공간에서 실내와 실외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방과 대청이 있으면, 방은 안이고 대청은 바깥이다. 대청과 마당이 있으면, 대청은 안이고 마당은 바깥이다. 마찬가지로 마당은 안이고 담장 밖은 바깥이 된다.

공간이 가변적일 뿐 아니라 복합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우리 건축이 지닌 독특한 특성이다. 분합문과 미단이 등을 이용하여 방과 방, 방과 대청이 쉽게 돌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하나로 통합되기도 한다. 그리고 방은 때에 따라서는 침실이 되기도 하고 식당이나 거실, 공부방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공간이 하나의 기능으로 정해지지 않고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가변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공간 특성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된 우리의 생활 특성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건축적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연과 사람, 그리고 건축이 하나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집에 대한 사고방식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통건축의 감상을 집 바깥에서 건물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논하는 단계에서 집 안에 들어가 내다보면서 자연과 사람이 집을 통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 차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

SILKROAD



03 자연을 모방한 상해 예원
04 자연을 시야로 끌어들이는 안동 병산서원
05, 06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공간 구성
- 논산 명재고택 안채와 정음 태인동헌



Zagreb

01

01 자그레브 옐라치치 광장
02 크로아티아 가톨릭의 상징,
성모승천대성당
03 지붕을 장식한 타일이
인상적인 성 마르코 성당



02



03



가톨릭 문화와 바다를 품은 크로아티아의 두 도시, 자그레브 & 두브로브니크

크로아티아라고 하면 보통 아드리아 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해변을 떠올린다. ‘태양의 해변’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여름 휴양지지만 매년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크로아티아를 찾는 이유가 비단 해변 때문만은 아니다. 크로아티아는 발칸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의 북상을 막아낸 가톨릭의 침병이었으며, 로마시대부터 지속해온 지중해 무역으로 번영을 누렸던 해양국가다. 크로아티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톨릭’과 ‘해양’ 두 가지 요소를 살피러 자그레브와 두브로브니크로 떠나 보자.

글 / 사진 이준명 (여행작가)

가톨릭 최후의 보루 자그레브(Zagreb)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의 구시가는 카프톨과 그라데츠라는 두 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시가의 시작점은 두 언덕 아래에 조성된 옐라치치 광장으로, 한가운데에 이 광장의 주인이자 크로아티아의 독립 영웅인 옐라치치 장군의 기마상이 세워져 있다. 옐라치치 광장은 일명 ‘자그레브의 배꼽’이라 불리는데, 구시가와 신시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지명이 유래한 우물이 있기 때문이다. ‘자그레브’는 ‘물을 뜨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광장 동쪽 바닥에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듯한 작은 분수가 우물의 흔적이다. 동서로 길쭉한 광장 남쪽은 파란색 트램들이 분주히 지나다니는 대로인 반면에, 광장 북쪽은 아르누보와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병풍처럼 쭉 늘어서 있다.

건물들을 구경하며 광장 동쪽으로 걷다 보면 야트막한 언덕 위로 거대한 첨탑이 우뚝 솟아 있다. 바로 크로아티아 가톨릭의 상징인 ‘성모승천 대성당’이다. 1102년에 완공되어 성모 마리아에게 헌정된 대성당은 외침과 대지진 등의 수난을 겪었다. 보수공사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대성당의 심벌인 쌍둥이 첨탑은 네오고딕 양식을, 5천 명의 신자가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본당은 바로크 양식을 취하게 되었다. 15세기 중반 오스만 터키의 이슬람 세력이 몰물 듯이 발칸반도로 밀려 들었을 때 크로아티아인은 대성당이 세워져 있는 카프톨 언덕을 중심으로 결사항전을 벌였다. 언덕 아래를 가득 메운 이교도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 만도 했지만, 성모 마리아가 수호하는 대성당이 등 뒤에 버티고 있기에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결국 발칸반도의 다른 나라들이 오스만 터키에 무릎 꿇고 이슬람을 받아들인 반면, 크로아티아는 끝까지 서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하며 가톨릭 국가로



04



05



06



07

04 민체타 탑에서 내려다본 구시가지와 아드리아 해

05 두 민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스트라둔 대로

06 루자 광장에 세워진 성 블라이세 교회

07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이 뒤섞인 렉터 궁전

남았다. 대성당 안에는 오스만 터키와의 전투에 목숨을 바친 크로아티아 용사들의 무덤이 마련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더욱 숙연하게 만든다.

카프톨이 자그레브의 종교 중심지라면 그라데츠 언덕은 상공업의 중심지다. 서로 라이벌 의식을 지니고 있던 두 언덕 사람들은 종종 언덕 아래의 개천에서 싸움을 벌이고는 했다. 어쩌나 싸움이 격렬했던지 개천의 다리에 ‘피투성이 다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다. 이처럼 자존심 강한 그라데츠 사람들은 카프톨에 신세를 지기 싫어서 언덕 위에 자신들의 성당을 따로 지었는데, 바로 알록달록한 타일이 인상적인 ‘성 마르코 성당’이다. 장난감 블록으로 세운 집을 연상케 하는 성당은 1256년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을 섞어 세워졌다. 지붕의 타일은 1880년 개축공사를 하며 덧붙인 것인데, 여기에 보이는 두 개의 문장은 자그레브 시와 크로아티아 왕국을 나타낸다.

그라데츠 언덕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팽창일로에 있는 자그레브 신시가가 펼쳐진다. 사실 자그레브는 1880년 11월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도시의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는 비극을 겪었다. 하지만 자그레브 시민들은 고난에 굴하지 않고 도시를 재건했는데 이 때 건축가 레누치의 설계로 공공건축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벨트를 조성했다. 일명 ‘레누치의 말발굽’이라고 불리는 ‘U’ 모양의 벨트에는 미술관, 박물관, 식물원이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들이 긴 띠 모양의 잔디밭으로 연결되어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도 그만이다. 끊임없는 외침과 재해로 피 흘렸던 이 도시에 이제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안식이 찾아든 셈이다.

해양의 숨결을 간직한 두브로브니크(Dubrovnik)

아드리아 해 연안에 자리한 두브로브니크는 한 때 지중해를 주름잡았던 라구사 공화국의 후예다. 베네치아와 각축을 벌일 만큼 융성했던 해상무역의 증거는 구시가를 빙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성벽이다. 성벽의 두께는 최대 6미터, 높이는 최대 25미터에 이르며 해적을 비롯한 외적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성벽을 바라보면 절벽 위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철옹성마냥 보인다. 두브로브니크가 ‘아드리아 해의 진주’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햇살 아래 반짝이는 성벽의 아름다움 때문이지만, 단단한 조개 껍질 속에 자리한 진주처럼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총 1,949미터에 이르는 성벽은 현재 구시가지와 아드리아 해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산책 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성벽 북쪽의 민체타 탑에서 구시가를 내려다보면 성벽 안을 가득 채운 붉은 지붕과 그 너머로 넘실대는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성벽 안의 구시가는 동서로 길게 뻗은 스트라둔 대로를 따라 구성되어 있다. 스



트라둔은 원래 바닷물이 들이치는 좁은 해협이었는데 해협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남슬라브인이, 남쪽에는 로마인이 살고 있었다.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오던 두 민족은 나중에는 아예 해협을 메워버리고 ‘라구사 공화국’이라 불리는 해양도시를 건설했다. 구시가 서쪽의 펠레 문에서 시작해서 약 200미터에 이르는 스트라둔은 두 민족의 화합의 상징이자 두브로브니크가 해양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였던 셈이다. 그런데 1667년에 두브로브니크를 덮친 대지진으로 스트라둔을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궁전들이 대부분 파괴되고 말았다. 서둘러 피해를 복구하느라 외관과 높이가 비슷한 건물들을 대량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바람에 중세 시대의 분위기를 물씬 풍겼을 화려한 건물들이 남아 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에는 아직도 해양도시 라구사의 숨결을 간직한 건축물들이 여럿 남아 있다. 스트라둔을 따라 동쪽으로 걷다 보면 순백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광장에 다다르게 되는데, 바로 구시가의 중심인 ‘루자 광장’이다. 온통 하얀 대리석으로 꾸며진 이 광장은 라구사 시절부터 축제가 열린 시민들의 장소다. 광장을 대표하는 건축물은 1368년에 세워진 ‘성 블라이세 교회’로, 두브로브니크의 수호성인인 성 블라이세에게 바쳐진 이래 시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 왔다. 성당 안에는 대지진 이전의 구시가 모형을 손에 들고 있는

성 블라이세의 상이 세워져 있는데, 언제까지라도 두브로브니크의 안위를 살피 달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교회 앞 계단은 구시가를 구경하느라 지친 다리를 쉬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다. 계단에 앉아 바라본 루자 광장은 낮이나 밤이나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그 옛날 동방의 산물을 싣고 두브로브니크를 찾은 상인들로 북적였을 이 광장에 어울릴 만한 광경이랄까. 여기에 광장 주변을 둘러싼 중세풍의 건물들까지 가세하니 화려했던 라구사 시절을 상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구시가지에서 가장 독특한 건물을 들라면 총독의 저택이었던 ‘렉터 궁전’을 꼽을 수 있다. 라구사 시절에 이 궁전에는 공화국을 다스린 평의회와 원로원이 들어서 있었다. 말하자면 ‘공화국의 두뇌’ 역할을 맡았던 장소인 셈인데,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수난을 겪었다. 화약 폭발 사고와 대지진 등으로 훼손된 건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을 차례로 들여왔는데 나중에는 양식들이 마구 뒤섞여 정체를 분간하기 힘든 외관을 갖게 되었다. 해상무역으로 번영을 구가한 라구사 공화국은 수시로 이방인이 드나들고 외지의 산물이 유통되던 해양도시였다. 따라서 다양한 양식이 혼합되어 탄생한 렉터 궁전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길 주저하지 않았던 두브로브니크 사람들의 열린 마인드를 보여주는 건축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SILKROAD**

아는 것이 힘!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00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천정부지로 치솟던 주택 가격은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규제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택 가격이 금융위기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침체의 그늘에 가려 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 정책과 제도를 통해 2014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늠해본다.

글 정광재 MBN 기자

규제 풀어 매매 살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는 매매시장 약세와 전·월세 시장의 강세로 요약된다.

그간 주택 매수세가 위축된 대신 전·월세 수요는 크게 증가했다. 수요 증가는 자연스레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매매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주택 보유자들의 보상 심리가 더해지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여기에 저금리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매매 가격 하향 안정, 전·월세 강세' 현상이 추세로 굳어진 모습이다.



① 다주택자들의 희소식! 양도세 완화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부동산 시장의 정책 변화는 매매시장 활성화 조치다. 실제 정부는 매매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의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던 다주택자들에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인 6~38%의 세금만 부과된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② 6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절반으로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 것도 큰 변화다. 기존에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 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지금은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졌다. 실제 6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1,2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했지만 이제 600만 원만 내면 된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했지만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취득세 인하 효과가 상당한 셈이다.

③ 만 19세부터 가능해진 주택청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예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지면서 주택 청약 가능 연령도 19세로 낮춘 것. 이에 따라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④ 수직증축 허용으로 리모델링 유리

올 4월부터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도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

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을 통한 신규분양이 가능해져, 리모델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⑤ 전세금 법적 보호, 최대 9,500만 원까지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주거생활 안정 대책이 대거 등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한 것. 그 동안의 전세 가격 상승을 감안해 법으로 보호하는 전세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는 기존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이하에서 9,5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수도권 지역은 6,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 또한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졌다.

⑥ 전세금 안심대출 제도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 제도도 도입됐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에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고, 시중은행은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연 3.5~3.7% 금리를 적용한다. 이 제도에 따라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내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다. 한 마디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공기업이 보증을 서주는 셈이다. **SILKBROAD**



봄바람을 가르며 달린다 자전거 하이킹

날씨가 매일 한 뼘씩 따뜻해지고 있다.
봄이 되어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아홉
도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요즘에는 도심 곳곳에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고 자전거로 둘러볼 수
있는 여행지도 많아졌다. 이번 주말
가족, 친구들과 함께 봄바람을 가르며
하이킹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글 김기찬

COURSE
01

강줄기 따라 달리는 북한강 자전거 길, 춘천

물과 안개의 도시, 춘천! 2012년 연말에 개통된 자전거 길이 북한강을 따라 서울과 춘천을 이어주고 있다. 북한강 자전거 길은 2010년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경춘선 폐철도를 활용하여 조성한 길로 북한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하며 라이딩을 할 수 있다. 용산이나 청량리역에서 ITX 청춘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갈 수도 있어 장거리 라이딩에 자신 없는 사람들도 도전해 볼 만하다. 남양주, 가평, 백양리, 강촌, 춘천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km에 가까운 코스가 두루 두루 아름답지만 그 중 특히 먹거리와 볼거리 풍성한 춘천-강촌 구간은 북한강 자전거 길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코스 정보(총 연장 약 25km)

● 춘천역 1.90km, 약 8분 ● 소양강호반공원 5.07km, 약 20분 ● 신매대교 4.96km, 약 20분

강촌역 ● 1.06km, 약 5분 강촌교 ● 4.96km, 약 20분 의암댐 ● 7.76km, 약 31분

자전거 대여소 위치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89 (강촌역 앞) / 문의 010-8796-3731

애니메이션
박물관

주변 명소

애니메이션 박물관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어른들에게도 인기 있는 춘천의 대표 박물관이다. 1층 전시관에서는 애니메이션의 기원과 역사, 제작 과정, 관련 기기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2층 전시관에서는 세계 각지의 애니메이션을 둘러보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위치 춘천시 서면 현암리 367 / 관람시간 10:00~18:00 / 휴관 매주 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 입장료 어린이 4,000원, 어른 5,000원(3D 입체영화, 장면 애니메이션, 로봇체험관 등 별도) / 문의 033-245-6470

COURSE
02

살아 있는 박물관, 천년고도의 유적 사이로, 경주

“발끝에 차이는 돌맹이 하나에도 역사가 살아 숨쉰다.”는 말이 있을 만큼 찬란한 문화유산이 가득한 천년고도 경주!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적으로 뒤덮여 있어 자동차보다 오히려 자전거로 돌아보는 편이 나을 정도다. 느릿 느릿 페달을 밟으며 계림에서 천년 전 신라인들의 숨결을 느껴보거나, 거대한 왕릉을 배경으로 바람처럼 달려보는 것은 분명 새로운 경험이자 추억이 될 것이다. 첨성대와 안압지, 천마총 등 이름난 유적들과 연못 또는 화사한 절터에서 경주의 속살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코스를 소개한다.

코스 정보(총 연장 약 12km)

● 경주역 2.53km, 약 10분 ● 흥륜사 807m, 약 3분 ● 재매정 435m, 약 2분

1km, 약 4분 첨성대 ● 958m 약 4분 대릉원(천마총) ● 952m, 약 4분 계림 ● 786m, 약 3분

● 경주 동궁과 월지 (舊 임해전지, 안압지) 1.1km 약 4분

● 황룡사지 ● 889m, 약 4분 ● 분황사 ● 2.85km 약 11분 ● 경주역 ●

자전거 대여소 위치 경주시 원화로 260 (경주역 앞) / 문의 054-749-8268



주변 명소

최씨고택

조선 중기에 무려 10대에 걸쳐 300년 동안이나 부귀영화를 누린 만석군 최씨 일가가 지은 고택이다. 원래는 그 규모가 아흔아홉 칸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채와 대문채, 사당만 남아 있다. 최부잣집은 서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등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선행을 베푼 것으로 더 유명하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곳이다.

위치 경주시 교촌안길 25 (교동) / 이용시간 24시간 / 휴무 연중무휴 / 입장료 무료 / 문의 054-779-6109

COURSE
03

바다를 끼고 달리는 역사 여행, 강화

강화는 선사시대의 고인돌부터 마니산 참성단, 고려 항쟁, 신미양요, 윤요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곳이다. 고유의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까지 갖추고 있어 사시사철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도보여행 코스인 '나들길'이 정비되고 자전거 길도 확충되어 요즘에는 트레킹이나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역사의 숨결과 바다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강화 하이킹, 갑곶돈대-초지진 구간을 소개한다.

코스 정보(총 연장 왕복 약 30km)

● 갑곶돈대 3.18km, 약 13분 ● 용진진 2.21km, 약 9분 ● 화도돈대

광성보 ● 2.84km, 약 11분 ● 오두돈대 ● 1.5km, 약 4분

2.28km, 약 9분 덕진진 ● 3.71km, 약 11분 초지진 ●

자전거 대여소 위치 갑곶매점 강화읍 갑곶리 226-2(갑곶돈대 입구) / 문의 032-933-3692

주변 명소

광성보

광성보는 강화의 해안 경비를 담당하던 12진보 중 하나다. 특히 이곳은 1871년 신미양요 때 가장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 해협으로 진입하는 미국 함대를 맞아 끝까지 싸웠으나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함락 당하고 병사 대부분이 전사했다. 슬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돈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아픔을 잊게 할 만큼 아름답다.

위치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33 / 입장료 청소년·군인 700원, 어른 1,100원 / 관람시간 09:00~18:00 / 휴관 연중무휴 / 문의 032-930-7070



우리 집 식탁 위에서 맛보는

세계의 장수음식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국 혹은 장수촌들은
깨끗한 자연환경, 규칙적인 활동, 이웃과의 교류 등
장수요인을 골고루 갖추고 있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장수요인으로 손꼽는 것이
바로 먹거리. 각국 고유의 특색이 살아 있으면서도,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세계 장수음식을 알아보자.

글 김유경



스페인 카탈루냐 주의 판 콘 토마테(Pan con Tomate)

‘유럽의 농장’이라 불리며, 신선하고 다양한 식재료가 넘쳐나
는 스페인. 그 중에서도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지
방에서 즐겨먹는 고유 음식이 있으니 바로 판 콘 토마테. 우리말
로 번역하면 ‘빵과 토마토’란 뜻의 판 콘 토마테는 빵과 토마토,
올리브오일, 마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이다.

판 콘 토마테 만들기

INGREDIENT

바게트빵, 올리브오일, 생마늘 1쪽, 잘 익은 토마토 2개, 소금
약간

RECIPE

- 1 얇게 썬 바게트 빵을 프라이팬이나 오븐에 살짝 굽는다.
- 2 마늘을 반으로 썬 뒤, 빵 표면에 마늘향이 배도록 문지른다.
- 3 토마토도 반으로 썰어, 빵에 으깬다는 느낌으로 문지른다.
- 4 마지막으로 빵에 올리브오일을 뿌리거나 적셔 먹는다.
싱거울 경우 소금을 약간 첨가한다.

TIP 토마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 토마토에는 리
코펜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리코펜은 노화방지와 항암효과에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토
마토는 생으로 즐기는 것보다 삶거나 끓였을 때, 다지거나 으켰을 때 리코펜
의 흡수율이 더 높다. 특히 토마토를 올리브오일과 곁들여 먹으면 그냥 먹을
때보다 리코펜을 9배 이상 더 흡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리스의 차지키(Tzatziki)

대표적인 장수국가 그리스에는 거의 대부분의 요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차지키가 있다. 주로 애피타이저나 소스로 사용되는 차
지키는 피타 기로스나 수블라키와 같이 육류가 들어간 그리스 요
리에 소스로 함께 제공되어 느끼함을 덜어주고 담백한 맛을 더하
는 역할을 한다. 양이나 염소젖으로 만든 그리스식 요거트가 주
재료지만, 구하기 힘든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는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해도 좋다.

차지키 만들기

INGREDIENT

그리스식 요거트(혹은 플레인 요거트) 1과 1/2컵,
오이 1/2개, 마늘 2쪽, 올리브오일 2큰술,
레몬즙/소금/후추 약간, 허브(민트, 라임 등) 혹은 파슬리

RECIPE

- 1 체에 면보를 덮은 뒤 그리스식 요거트를 붓고, 그 상태로 냉
장고에 넣어 걸러낸다.
- 2 오이는 껍질과 씨부분을 제거하고 다진 뒤, 물기를 빼놓는
다. 아삭한 식감을 원하면, 작게 썰어도 좋다.
- 3 되직해진 요거트에 다진 오이와 다진 마늘, 올리브오일, 레
몬즙, 허브 혹은 파슬리를 넣어 잘 섞어주고, 소금과 후추
로 간을 맞춘다.

TIP 올리브

대부분의 세계 장수촌에서 즐겨 먹는 식품이 바로 올리브열매절임 혹은 올
리브오일이다. 그리스인들은 거의 모든 식품에 올리브를 넣어 먹는데, 올
리브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풍부하게 포함된 항산
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소화기계 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일본 오키나와의 지마미도후(ジーマミ豆腐)

오키나와 여행에서 꼭 빼놓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지마미도후. 우리말로로는 땅콩두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콩과 간
수를 사용하지 않고 전분으로 땅콩을 굳혀 두부처럼 만든 음식이
다. 두부보다 더 찰지고, 땅콩 특유의 고소함이 살아있으며 주로
차게 해서 생강간장 소스와 함께 곁들여 먹는다.

지마미도후 만들기

INGREDIENT

생땅콩 1컵, 물 3컵, 전분 1/2컵, 설탕 1작은술,
사케 혹은 청주 1작은술, 소금 약간, 간장 1큰술,
생강 혹은 고추냉이 약간

RECIPE

- 1 생땅콩을 반나절 가랑 물에 불려 껍질을 제거한 뒤, 믹서에
땅콩과 물을 약간 넣고 간다.
- 2 간 땅콩을 면보에 넣고 짜서, 즙(땅콩두유)을 낸다.
- 3 땅콩두유에 전분을 조금씩 넣으면서 섞은 뒤, 고운 체로 거
르면서 냄비에 붓는다.
- 4 중불로 냄비를 가열하면서 준비한 설탕, 청주, 소금을 넣은
뒤 30~40분 정도 천천히 나무 주걱으로 젓는다.
- 5 표면에 주름이 나오는 상태가 되면 불을 끄고 미리 준비한
작은 그릇에 담는다.
- 6 커다란 볼에 찬물을 넣고 두부가 담긴 작은 그릇을 띄워 차
갑게 식힌다.
- 7 차게 식은 두부를 접시에 담고, 곱게 간 생강이나 고추냉이
를 넣은 간장 소스를 곁들인다.

TIP 땅콩

땅콩, 호두, 잣 등의 견과류에는 복합 불포화지방산(오메가-3), 올레인산,
리놀산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또한 땅콩에 많이 들어 있는 비타민E는 항산화작용을 도와 노화를 예방
하고 비타민 B1, B2는 피
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SILKROAD



SUPER Structure 2020 연구단 과제 공동연구기관 선정



실크로드시앤티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SUPER Structure 2020 연구단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SUPER Structure 2020 프로젝트는 첨단건설재료 기술과 핵심 설계·제작·시공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임급 역량강화 워크숍



지난 12월 20일 ~ 21일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주임급 역량강화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회사에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스킬을 습득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제2회 슈퍼스타S 오디션



지난 12월 30일, 송년의 밤에서 「제2회 슈퍼스타S 오디션」이 개최되었다. 예선을 통과한 6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춤과 노래, 콩트와 마술 등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우승팀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베트남문화탐방 참가권이 포상으로 지급되었다.

제3회 베트남문화탐방



지난 2월 17~21일, 24~28일까지 2차례에 걸쳐 제3회 베트남 문화탐방이 진행되었다. 그 동안 고객들이 보여준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실크로드시앤티 임직원과 고객사 등 총 100명이 참가했다.

태안여고 장학금 전달

2월 27일 「2014 모범학생 장학금」을 태안여고에 전달했다. 실크로드시앤티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부터 태안여고 모범학생들을 후원해왔다.

회가 거듭될수록 사보의 내용이 알차지는 것이 실크로드시앤티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지원하시는 것이 무척 부럽습니다. 다음 호에도 회사의 발전되어 가는 모습들을 담은 내용을 기대해 봅니다. 실크로드시앤티 파이팅!

오일근 |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양한 주제로 무겁지 않게 책장을 넘길 수 있어 좋습니다. 관련 업계 등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주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박승화 | 서울 서초구 방배동

우연히 저에게 찾아온 우편물. 낯익은 회사 이름... 1997년도 터널공사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날의 인연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유익하게 사보를 잘 만들었는지... 앞서가는 실크로드시앤티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실크로드시앤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남인식 | 부산 강서구 봉림동

건축기행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편 비대칭과 유사대칭성 '아름다운 무질서' 이 말이 와 닿네요. 앞으로도 해외 건축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실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송래 | 충북 진천군 광혜원

실크로드시앤티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설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 실크로드시앤티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사보에서와 같이 직원들의 생동감 넘치는 의욕도 보기 좋고 다양한 정보 또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군요. 향후 세계 건축물 소개, 여행지 및 신기술, 신제품 등 친환경과 관련된 분야, 레저(계절별, 등산, 낚시, 골프 등)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실크로드시앤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봅니다.

이민호 | 강원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승진

실크로드시앤티

- 전무 박광영(평택공장 공장장)
- 상무 양원종(평택공장 생산팀장)
- 이사 주영길(기술연구소 EPD팀장)
- 부장 김재준(평택공장 관리팀장)
- 차장 강지훈(영업본부 영업1팀)
- 과장 이재선(평택공장 관리팀), 이희명(평택공장 생산팀 생산1파트), 김현우(기술연구소 연구2팀)
- 대리 김민우(경영지원팀), 민병률(경영기획본부 기획팀), 이동근(경영기획본부 재경팀), 박지연(평택공장 생산팀), 오인지(평택공장 품질보증팀), 한용희(기술연구소 연구2팀), 권종구(기술연구소 연구2팀), 민정환(기술연구소 연구3팀), 신승봉(기술연구소 EPD팀)
- 주임 나은진(경영기획본부 재경팀), 권오광(평택공장 생산팀 공무파트), 박상태(기술연구소 연구2팀), 김지태(기술연구소 연구2팀), 심영래(기술연구소 연구2팀), 안효미(기술연구소 연구3팀)

실크로드티앤디

- 차장 장준희(태안공장 연구개발팀)
- 과장 신복수(태안공장 관리팀), 김동만(태안공장 생산팀)
- 대리 김세훈(태안공장 연구개발팀)

입사

실크로드시앤티

- 김태기 차장(평택공장 관리팀), 오준호 과장(경영기획본부 기획팀), 신해림 주임(해외영업본부 해외영업팀), 김영기(평택공장 생산팀 생산1파트), 전미소(평택공장 관리팀), 박세철(평택공장 생산팀 생산1파트), 김상호(기술연구소 연구3팀)

실크로드티앤디

- 권승환 차장(태안공장 관리팀장), 유한준 주임(영업본부 TD팀), 권지연(태안공장 생산팀), 김정아(경영지원팀), 김정희(태안공장 생산팀)

지난호 퀴즈 당첨자



콘도 숙박권

김형권 | 대전 유성구 봉산동

백화점 상품권

오일근 |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인식 | 부산 강서구 봉림동

김영제 | 강원 홍천군 내론면

박정원 | 충북 청원군 내수읍